

## ◆ 북미

- 미국, 건강지수를 통한 주별 등급 발표
- 미국, 2008년 최고안전차량 선정 발표
- 미국, 3/4분기 개인생명보험 판매 급증

## ◆ 유럽

- TowerGroup, 보험산업에서 IT의 중요성 분석
- Lloyd, 나노테크놀러지 관련 컨퍼런스 개최
- ABI 보고서, 영국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가입 확대 주장

## ◆ 일본

- 12개 생명보험그룹, 상반기 수입보험료 2년 연속 감소 기록
- 외국계 생보사, 상반기 방카슈랑스 판매확대로 수입보험료 증가
- 생보업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관련 투자 영향 미미

## ◆ 중국

- 중국생명(中國人壽), 생명보험회사에서 금융그룹으로 변신
- 중국생명(中國人壽), 주식투자 축소 계획
- 중국, 농업보험제도 정착 위해 재정보조확대 필수

##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 미국, 건강지수를 통한 주별 등급 발표

- 미국 연합건강재단은 2006 보고서를 통해 건강지수를 통한 연간 주별 등급을 발표했는데, 미국은 건강기대수명과 유아사망률에 있어 다른 국가에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 보고서는 미국 건강복지사업부, 상무부, 교육/노동부 등의 정보를 이용해 개인행동(흡연과 비만 등), 직장과 가정환경, 의료의 질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 미국인의 상대적 건강도를 분석함.
- 주별 순위에서 미네소타가 1위를 했는데, 지난 17년 중에 11번째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낮은 심혈관질환사망률, 낮은 조기사망률 그리고 낮은 무보험인구비율 등에서 1위를 함에 따라 종합 1위에 오름.
  - 또한 아동빈곤율, 총사망률, 유아사망률, 산재율, 그리고 자동차사망률까지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높은 고등학교 졸업률을 보임. 그러나 23.7%의 비만율과 같은 건강상의 위험요인이 있음.
- 루이지애나는 비만율, 산재율, 아동빈곤율, 유아사망률, 암사망률, 그리고 조기사망률 등이 모두 높게 나타나 50위에 기록됨.
- 전국적 건강정체 : 미국인의 전체건강은 1990년 이후 18.7%가 개선된 반면 건강증진율은 2000년 이후 상당히 느려짐.
  - 이는 전염병, 심혈관질환사망 그리고 자동차사망과 같은 요인이 감소한 반면 지속적인 흡연과 상대적으로 높은 유아사망률 때문임. 더구나 비만율은 1990년 11.6%에서 현재 거의 25%로 증가함. 비만은 다른 많은 질환의 전조이기 때문에 전체 건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줌.

|            |   |
|------------|---|
| 최상위 5대 건강주 | 1.미네소타, 2.버몬트 3.뉴햄프셔, 4.하와이 5.코네티컷          |
| 최하위 주      | 46.아칸사스, 47.테네시 48.남캘리포니아, 49.미시시피 50.루이지애나 |

(Insure.com, 9/17)

## □ 미국, 2008년 최고안전차량 선정 발표

-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는 2008년 최고안전차량수상차로 34개 차량을 선정하여 발표함.
  - 본상은 전면, 측면, 그리고 후방충돌에 있어 탑승자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협회테스트에 따른 등급에 기초함.
  - 또한 수상차량들은 차체자세제어장치(ESC)를 장착해야만 하고 이는 충돌 위험을 상당히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남.
- 최고안전차량선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차량은 지난해에 비해서 배증했음.
  - 2007 모델연도 초에는 13개 모델이 자격을 갖추었으나 차량제조업체들이 개조를 하고 신모델과 보다 안전한 차량디자인을 도입함에 따라 10개의 차량이 추가적으로 자격을 갖추.
- 수상차량들은 충돌방지장치장착 : 협회는 충돌방지기준을 지난해 추가해서 최고안전차량을 선정하고 있음. 수상차량들은 ESC를 장착해야 함.
- 처음으로 픽업트럭도 선정대상으로 포함 : 픽업트럭은 협회가 측면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아 현재까지 최고안전차량 선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Toyota Tundra는 처음으로 이 요건을 충족시킴.
  - 픽업트럭은 차량 또는 SUV처럼 측면에어백이나 ESC를 장착하지 않았으나 Toyota는 이러한 장치를 Tundra에 표준으로 만듦.

| 2008년 11개 신규 수상차량   | 34개 수상차량   |
|---|--|
| <b>중형 차량</b> : Audi A3, Honda Accord<br><b>소형차</b> : Subaru Impreza (ESC 장착)<br><b>미니밴</b> : Honda Odyssey<br><b>중형SUV</b> : BMW X3, BMW X5, Hyundai Veracruz(after Aug 2007), Saturn VUE(after Dec 2007), Toyota Highlander<br><b>소형SUV</b> : Honda Element<br><b>대형픽업</b> : Toyota Tundra | <b>대형차</b> : Audi A6, Ford Taurus (ESC 옵션), Mercury Sable (ESC 옵션), Volvo S80<br><b>중형차</b> : Audi A3(and A4), Honda Accord, Saab 9-3, Subaru Legacy (ESC 옵션)<br><b>중형 컨버터블</b> : Saab 9-3, Volvo C70<br><b>소형차</b> : Subaru Impreza (ESC 옵션)<br><b>미니밴</b> : Honda Odyssey, Hyundai Entourage, Kia Sedona<br><b>중형SUV</b> : Acura MDX(and RDX), BMW X3(and X5), Ford Edge, Taurus X, Honda Pilot, Hyundai Santa Fe, Hyundai Veracruz(after Aug 2007), Lincoln MKX, Mercedes M class, Saturn VUE(after Dec 2007), Subaru Tribeca, Toyota Highlander, Volvo XC90<br><b>소형SUV</b> : Honda CR-V (and Element), Subaru Forester (ESC 옵션)<br><b>대형 픽업</b> : Toyota Tundra |

(insure.com, 11/15)

## □ 미국, 3/4분기 개인생명보험 판매 급증

- LIMRA는 미국 개인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2007년 3/4분기 20%의 급증세를 보이며 2007년 9월말 누적기준으로 8% 증가했다고 보고함.
  - LIMRA의 상품조사분석가는 “기업보유 생명보험(COLI)과 사모판매가 이번 분기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며 “더구나 보험회사들은 서비스 확대와 새로운 채널(BGAs/MGAs/도매판매업자)로의 확장 또한 판매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함.
- 또한 보험가입금액이 2006년 3분기말 6%증가한 반면 신계약건수는 1% 감소했다고 보고함.
  - 2007년 9월말 모든 상품들이 증가했는데, 특히 유니버설과 변액유니버설생명이 각각 9%, 10%(3분기 23%, 55%) 증가하였고, 정기보험은 7%, 종신보험은 3% 증가함.
  - 3분기 판매증가에서 중개채널을 통한 판매가 큰 기여를 했는데 특히 UL와 VUL이 누적기준으로 16%, 19%, 분기기준으로 28%, 110% 각각 증가함.
- 상품별 비중은 유니버설생명보험이 40%로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정기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이 각각 23%, 15% 수준에 이룸.

보험종목별 3/분기 성장률

| 구 분      |       | 연환산보험료 | 가입금액 | 계약건수 |
|----------|-------|--------|------|------|
| 유니버설생명   | 3/4분기 | 23%    | 12%  | 4%   |
|          | 누적    | 9%     | 7%   | -1%  |
| 변액생명     | 3/4분기 | -5%    | 1%   | -8%  |
|          | 누적    | 1%     | 0%   | -8%  |
| 변액유니버설생명 | 3/4분기 | 55%    | 9%   | -1%  |
|          | 누적    | 10%    | 2%   | -5%  |
| 정기보험     | 3/4분기 | 6%     | 7%   | 1%   |
|          | 누적    | 7%     | 7%   | 1%   |
| 종신보험     | 3/4분기 | 0%     | -1%  | -8%  |
|          | 누적    | 3%     | 1%   | -4%  |
| 총계       | 3/4분기 | 20%    | 7%   | -2%  |
|          | 누적    | 8%     | 6%   | -1%  |

출처 : LIMRA,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Summary Report, Third”

(LIMRA International, 11/27)

##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 TowerGroup, 보험산업에서 IT의 중요성 분석

- TowerGroup의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험산업은 현재까지 기술혁명을 선도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기술에서의 급속한 진전이 향후 5년에서 10년간 보험산업의 전망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힘.
  - 자동차안전기술의 개선과 GPS 이용의 확대 영향으로 데이터 수집에 새로운 방식이 이루어지고, 진보적인 보험회사들은 고객과, 대리인, 고용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그들의 니즈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새로운 수단을 개발하게 될 것임.
- 또한 보험산업에서 혁신 가능성은 더욱 빠른 컴퓨터와 브라우저에 기초한 고객 경험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있으며, 아래와 같은 6개 원리가 보험산업을 향후 10년간 혁신으로 이끌 것이라고 장담함.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변화, 컨텍스트 데이터의 검색 및 포착, 주변산업으로부터의 기술 활용, 사용자간 협력, 민첩성있는 인프라, 기능적인 리스크관리
  - 이를 통해, 현재 에어백의 성능 개선을 위해 생산자가 사고데이터 기록 기술을 이용하던 것에서 나아가 보험사기 방지와 사고에 대한 정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사정 파트로까지 활용도가 증가하게 될 것임.
- 2012년까지 GPS 기술은 보험회사가 지역리스크 반영 등 다양하고 기능적인 가격산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격산출의 적합성을 향상시키는데 이용할 수 있는 거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이러한 변화는 기술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가에 따라 가속화될 것이며, 글로벌 보험산업에 의한 IT개발계획에 대한 비용투자가 2006년 10억 달러에서 2010년까지 12.5억 달러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PR Newswire, 11/26)

## □ Lloyd, 나노테크놀러지 관련 컨퍼런스 개최

- Lloyd는 나노테크놀러지\*를 다룬 자료를 통해 보험산업은 이를 단순히 경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연구기관인 Lighthill Risk Network 주최로 “나노테크놀러지의 기회와 리스크”라는 주제로 12월 10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 4명의 전문가가 연구배경의 범위에서부터 최근 진척단계까지 설명할 것이며, 12월에는 Lloyds 웹사이트를 통해 나노테크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임.
  - \* 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를 가리키는 초극미세단위이며, 나노테크놀러지는 현미경을 통해 실체를 볼 수 있는 원자나 분자를 조작해 신물질을 만드는 기술로 의약품에서 산업소재와 농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되고 있음.
- 동사는 나노기술이 보험산업에 가져다주는 혜택이 나노로 인한 신규산업에 보험가입을 촉진하게 하는 것 외에도 더 견고하고 적합한 새로운 물질이 형성됨으로써 위험의 경감이라는 직접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힘.
  - 자동차의 경우 충돌시 충격 흡수를 강화하도록 제작될 수 있고, 건물 구축재 또한 지진, 화재, 홍수, 부식피해에 대한 저항성을 강화시키도록 만들 수 있을 것임.
  - 환경정화 부문에서도 특화된 나노입자를 사용하여 비용이 덜 들고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임.
- Lloyd는 2014년까지 전세계 모든 상품의 15%가 나노기술을 함유할 것이며 이는 모든 이들의 관심사라고 밝힘.
  - 보험회사들은 보험신상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더 안전한 물질로 인해 보험손실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예상치 못한 수명, 건강, 근로자배상, 상해, 오염으로 인한 손실의 가능성에도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 나노입자가 인간에 해로운 부분이 있는가와 석면과 유사하게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Insurance Journal, 11/26)

## □ ABI 보고서, 영국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가입 확대 필요

- ABI는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가구의 보험비가입률이 높아 동 계층에 대한 위험대비책의 확보가 필요하며 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이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담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저소득(연소득 1만유로 미만) 가구의 35%가 어떠한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평균소득(1만5천유로~3만유로) 가구의 보험비가입률 5%와 대조적임.
  - 가재담보 재물보험의 경우 저소득층의 절반 정도가 가입한 반면, 평균소득 층의 80%가 가입하였고,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25%만이 가입한 반면 평균소득층은 50%정도의 가입률을 보임.
  - 소득이 낮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의 1/3이 도난피해나 재물손실에 대하여 예금을 차용하는 형태로 부채를 늘려가고 있음.
- 저소득층은 자금의 부족 등을 보험 비가입의 이유로 꼽았으나, 실제 재난 등의 위기시 빈곤층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함.
  - 강도 : 1회 이상 강도손해를 입은 확률이 5천유로 미만의 저소득층이 3만유로 이상의 고소득층에 비해 7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소유자에 비해 무주택 정부지원 세입자가 강도를 당한 경험이 133%나 많음(*Crime in England & Wales 2005/6, July 2006*).
  - 방화 : 방화발생률이 부촌에서 보다 빈촌에서 30배 높음(*Tackling Arson, Home Office, April 2006*).
  - 홍수 : 인구의 10%인 극빈층은 상류층 10%와 비교하여 홍수범람 위험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8배 높음(*Addressing Environmental Inequalities, Environment Agency, October 2004*).
- ABI는 저소득층 보험가입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보험회사들은 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험에 대한 인식전환과 보험의 중요성을 고취시켜야 하며, 재무 교육의 제공과 함께 구매가능한 상품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힘.

(ABI, 11월)

##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 12개 생명보험그룹, 상반기 수입보험료 2년 연속 감소 기록

- 일본의 12개 생명보험그룹의 2007년도 상반기 영업실적이 지난 26일 집계됨.
  - 국내 9개 그룹의 수입보험료는 보험금 지급 누락 문제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한 8조 8909억엔으로 나타나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함.
  - 수입보험료 감소의 영향으로 기초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한 1조 1423억엔으로 나타났으며 주력인 사망보험의 신계약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4% 감소함.
  - 보험금 지급 누락 문제로 인한 생명보험회사의 불신이 확대되어 고객 이탈이 확대되었으며, 금융청의 지시로 고객조사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결과 상위 4개 생보사를 중심으로 신계약 건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특히 니혼생명은 신계약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49.5% 감소함.
  
- 상위 9개 생명보험회사의 2007년도 상반기 보험금 지급 누락 조사에 지출한 비용은 243억엔에 달하며, 보험금 누락에 대한 추가 지급액도 500억엔을 상회하여 이익을 압박함.
  - 기초이익이 증가한 회사는 T&D, 부국, 소니, 아사히의 4그룹뿐이었으며 스미토모생명보험의 변액연금 방카슈랑스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알리코생명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2개는 증가하는 등 상위 3개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실적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기초이익은 AFLAC이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알리코와 AXA는 증가하였음.
  - 서브 프라임을 포함한 증권화 상품을 보유한 미츠이생명보험과 아사히생명보험의 평가손이 각각 16억엔과 3억엔으로 나타나는 등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음.

(마이니치신문, 11/26)

## □ 외국계 생보사, 상반기 방카슈랑스 판매확대로 수입보험료 증가

- 일본에서 영업중인 13개 주요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2007년도 상반기 영업실적이 집계됨.
  - 알리코와 AIG스타생명보험을 제외한 11사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여 국내 생보사들의 실적과 명암이 엇갈림.
  - 방카슈랑스 채널에 의한 변액연금의 판매가 크게 늘어나 신계약 성장에 영향을 주었음.
  - 신계약 수입보험료는 하트포트생명보험 등 6사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하트포트생명과 메뉴라이프생명보험은 변액연금의 방카슈랑스 판매가 큰 폭으로 성장하여 신계약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 대비 60%이상 성장하였음.
- 한편, 알리코, 지브랄터생명보험, AIG스타생명의 신계약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20% 감소하였음.
  - 엔고의 영향으로 주력 상품인 달러기준 연금 판매가 정체되었기 때문임.
- 기초이익은 메뉴라이프생명 등 7사에서 이익이 감소되거나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연금 판매 호조로 판매 수수료 등의 사업비가 늘어났음.
-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상당수는 방카슈랑스를 주력 판매채널로 하여 보험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방카슈랑스시장에서의 외국계 생보사 간 경쟁심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FujiSankei Business I, 11/30)

## □ 생보업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관련 투자 영향 미미

- 니혼(日本)생명보험과 메이지야스다(明治安田)생명보험 등은 지난 26일 2007년도 상반기 영업실적 발표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상품에 직접투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함.
  - 한편, 미츠이생명은 투자규모가 30억엔으로 16억엔의 평가손을 시현하였음.
  - 니혼생명의 한 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펀드운용의 일부에 포함하고 있지만 「오히려 현재 평가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9월말 기준으로는 「매각손도 평가손도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함.
  - 메이지야스다생명도 서브 프라임 관련 상품에 직접투자는 없는 것으로 밝혔으며, 이 회사의 한 임원은 메이지야스다가 보유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펀드 오브 펀즈(fund of funds)에 「서브 프라임 관련 간접투자가 있었지만, 9월말 기준으로 평가손이나 매각손은 없다」라고 말함.
  - 상반기 16억엔의 평가손실을 시현한 미츠이생명은 2007년도에는 최고 30억엔의 평가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스미토모생명의 한 임원은 서브 프라임 관련 상품에 직접 또는 간접투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함.
  
-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2007년도 상반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투자 규모는 아이오이손해보험(Aioi Insurance)이 1154억엔을 투자하여 9월말 기준으로 252억엔의 평가손을 시현하였음.
  - 또한, 손보재팬은 서브프라임 관련 자산액이 없지만, 서브프라임 관련 CDO(부채담보부증권)의 원금 상환 보증업무에서 인수 잔액이 2400억엔으로 나타남.
  - 미츠이스미토모(三井住友)해상화재보험의 상반기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는 금융보증이 11억엔, 헤지펀드 투자가 3000만엔으로 나타났음.
  - 니혼코아(日本興亜)손해보험의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는 10억엔, 닛세이도화(日生同和)손해보험의 투자는 없었음.

(일본 로이터, 11/26)

##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 중국생명(中國人壽), 생명보험회사에서 금융그룹으로 변신

- 중국생명(中國人壽) 이사회장 양차오(楊超)에 따르면, 중국생명은 보감위에 기금관리회사를 자회사로 두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보감위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함께 중국생명은 손해보험회사와 연금보험전문회사 설립을 추진한다는 공고를 발표하였는데, 중국생명은 중국생명그룹과 함께 중국생명손해보험회사의 자본금을 현재 10억 위안에서 40억 위안으로 늘리기로 결의했으며 동시에 연금보험회사 설립에 25억 위안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세계적으로 금융혼합경영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만큼 중국생명의 발전 방향 역시 세계적인 금융그룹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며, 중국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먼저 금융그룹으로 발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 것임.
  - 최근 광둥발전은행과 중신증권 주식을 사들이면서 경영권 확보에 나서고, 신탁회사와도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등의 행보로 볼 때 중국생명은 ‘핵심업무를 강화하면서 다원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을 착실히 이행 중임.
  - 중국생명은 생명보험을 핵심업무로 규정하고 향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자산관리를 비보험 업무의 핵심으로 삼는다는 1단계 전략은 완성한 상태임.
  - 다음 단계로 핵심업무를 양로보험과 손해보험으로 확대한 후 마지막으로 비보험 업무영역을 은행, 기금, 증권, 신탁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임.

(중국증권보, 11/29)

## □ 중국생명(中國人壽), 주식투자 축소 계획

- 중국생명(中國人壽) 투자집행관 리우러페이(劉樂飛)에 따르면, 중국생명은 앞으로 회사의 지분투자를 늘리고 펀드나 주식투자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생명은 금년에 주식시장 활황으로 투자수익이 수입보험료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민은행이 연내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지만 중국생명 내부적으로는 투자수익 증가와 금리연동형 상품의 선전으로 위험이 분산됨으로써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현재 10% 이내에서 운용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비율을 높이고, 25%까지 투자하고 있는 펀드/주식 투자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임.
  - 보강위의 정책적 제한으로 현재 지분투자는 금융, 기초건설 부문에만 투자되고 있으나, 조만간 정책이 완화되면 전력, 공항, 에너지 등의 영역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중국생명이 현재까지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 약 18억 달러이며, 그 중 약 10억 달러가 홍콩 주식시장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음.
  - 지금까지의 투자는 자체 보유 외화로 이루어졌으며 투자수익률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이지만, 외화를 구매하여 추가 해외투자를 감행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중국생명은 이와 함께 펀드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자산운용 분야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임.

(남방도시보, 11/29)

## □ 중국, 농업보험제도 정착 위해 재정보조확대 필수

- 농업보험은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농촌만들기 운동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는데,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농촌경제연구부 부장 한 쥘(韓俊)은 "중국의 농업보험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특히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힘.
- 현재 중국 농업보험 발전추세는 양호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으나, 하지만 여전히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사회보장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것도 사실임.
  - 이에 대해 중국손해보험그룹 총경리 우옌(吳焰)은 "농업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정부의 마스터플랜 하에, 이를 제도화하고 중앙재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국무원과 중국손해보험그룹은 농업보험 정책수립과 농업보험의 3대 특성(고위험, 고비용, 고급부)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 초부터 베이징시 외곽의 농촌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실험을 시도함.
  - 그 결과 '정부추진, 정책지원, 시장운영'이라는 새로운 농업보험 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으며,
  -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정부+기업+농민' 3자가 연합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정부로부터의 다양한 형태의 재정보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중국보험보, 11/26)

## 【 Financial Key Indicators 】

| 구분     |             | 06년말      | 07.11.16(금) | 07.11.23(금) | 07.11.30(금) | 전주대비    |
|--------|-------------|-----------|-------------|-------------|-------------|---------|
| 금리 (%) | 韓 국고채(3년)   | 4.92      | 5.46        | 5.62        | 5.77        | +0.15p  |
|        | 美 10년국채     | 4.71      | 4.17        | 4.00        | 4.38        | +0.38p  |
|        | 英 10년국채     | 4.73      | 4.63        | 4.56        | 4.64        | +0.08p  |
|        | 日 10년국채     | 1.68      | 1.48        | 1.42        | 1.48        | +0.06p  |
| 주가     | 韓 KOSPI     | 1,434.46  | 1,926.20    | 1,772.88    | 1,906.00    | +7.51%  |
|        | 韓 KOSDAQ    | 606.15    | 755.29      | 700.68      | 741.84      | +5.87%  |
|        | 美 DJIA      | 12,463.15 | 13,176.79   | 12,980.88   | 13,371.72   | +3.01%  |
|        | 美 Nasdaq    | 2,415.29  | 2,637.24    | 2,596.60    | 2,660.96    | +2.48%  |
|        | 英 FTSE      | 6,240.90  | 6,291.20    | 6,262.10    | 6,432.50    | +2.72%  |
|        | 獨 DAX       | 6,596.92  | 7,612.26    | 7,608.96    | 7,870.52    | +3.44%  |
|        | 佛 CAC40     | 5,541.76  | 5,523.63    | 5,521.17    | 5,670.57    | +2.71%  |
|        | 日 Nikkei225 | 17,225.83 | 15,154.61   | 14,888.77   | 15,680.67   | +5.32%  |
|        | 中 상해종합      | 2,675.47  | 5,316.27    | 5,032.13    | 4,871.77    | -3.19%  |
|        | 대만 가권       | 7,823.72  | 8,764.82    | 8,342.20    | 8,586.40    | +2.93%  |
| 홍콩항셍   | 19,964.72   | 27,614.43 | 26,541.09   | 28,643.61   | +7.92%      |         |
| 환율     | 원/달러        | 929.60    | 915.80      | 930.80      | 929.60      | -1.20   |
|        | 원/100엔      | 781.83    | 829.12      | 860.56      | 846.51      | -14.05  |
|        | 엔/달러        | 118.90    | 110.45      | 107.93      | 110.82      | +2.89   |
|        | 달러/유로       | 1.3148    | 1.4613      | 1.4804      | 1.4759      | -0.0045 |
|        | 위안/달러       | 7.8135    | 7.4220      | 7.4120      | 7.3965      | -0.0155 |